



전국체전 '팡파르'

제92회 전국체육대회의 개막일을 하루 앞둔 5일 경기도 일산 호수공원에서 열린 리허설에서 기수들이 각 시·도를 상징하는 깃발을 들고 입장하고 있다.

/일산=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내년 프로야구

4월 7일 개막

KIA-SK 인천서 개막전

내년 프로야구가 4월7일 정규리그를 시작한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4일 9개 구단 단장과 이상일 KBO 사무총장이 참석한 제6차 실행위원회를 열어 내년 경기 일정을 확정했다고 5일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내년 페넌트레이스는 4월7일 개막한다.

2010년 최종 순위에 따라 한국시리즈 우승팀인 SK가 KIA(5위)와 인천 문학구장에서 공식 개막전을 치른다.

나머지 개막전은 삼성(2위)-LG(6위·대구), 두산(3위)-넥센(7위·잠실), 롯데(4위)-한화(8위·사직)의 대결로 펼쳐진다.

경기 수는 올해 수준으로 유지된다.

실행위원회는 지난 6월 제4차 회의에서 내년부터 텁당 7경기씩 많은 140경기를 치르기로 했으나 이번 회의에서 내년에도 텁당 133경기를 유지하기로 확정했다.

/연합뉴스

## 전남 '10위 수성' 나섰다

전국체전 오늘 개막…전북·대구와 경쟁

전남이 제92회 전국체육대회 종위권 수선을 목표로 1주일간의 열전에 뛰어든다.

전남은 6일 경기도 고양에서 개막하는 전국체전에 1643명(선수 1288명 임원 413)의 선수단을 파견한다. 42개의 정식 종목과 산악·댄스스포츠·택견 3개의 시범종목에서 메달에 도전하는 전남은 종합 10위 지키기 나선다.

전남은 앞선 90·91회 대회에서 2년 연속 종합 10위에 올랐었다. 이번 체전에서도 전남은 2만9000~3만1000점대의 득점을 획득해 순위를 유지하겠다는 각오다.

전남과 라이벌 구도를 형성했던 대구가 내년 전국체전 개최를 대비해 전력을 크게 보강한 가운데 전북과 강원이 전남과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와 비슷한 전력을 유지하고 있는 전북은 올 시즌 좋은 대진운까지 더해 순위 상승을 노리고 있고, 지난 대회 8위 강원도 한자릿수 등위 진입을 자신하고 있다.

전남의 10위를 위해서는 경기종 변수가 많은 사격·궁도·승마 등의 기록종목과 야구·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한국, 호주 8-0 대파 야구월드컵 2연승

29년 만에 세계정상 탈환을 노리는 한국 야구가 제39회 야구월드컵에서 호주를 대파하고 2연승을 달렸다.

천보성(한국대표팀은 5일(이하 한국시간) 파라나 치트레의 리코 세네뇨 구장에서 열린 야구월드컵 예선라운드 2조 3차전에서 선발투수 오현택(상무)의 호투와 타선의 맹타를 앞세워 호주를 8-0으로 물리쳤다.

시차 적응이 되지 않아 3일 베네수엘라와의 첫 경기에 역전패하고 4일 독일과도 10회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을 벌였던 한국은 이날 완승을 하면서 원전히 제 페이스를 찾았다.

반면 호주는 이번 대회 3경기 연속 무득점 폐배의 수렁에 빠졌다.

한국은 6일 하루 휴식을 취한 뒤 7일 아파 주어 최강 쿠바와 4차전을 치른다. /연합뉴스

## “올 가을엔 내가 미쳐주마”

나지완·안치홍·양현종

KIA '가을사나이' 별러

호랑이 군단의 가을 사나이는 누가 될까?

8일부터 2011 프로야구 최후의 승부를 가르는 포스트시즌이 시작된다. 2009 챔피언 KIA 타이거즈는 SK 와이번스를 상대로 준플레이오프 일정에 돌입한다.

가을찬가이 일박하면서 단기전의 승부를 기를 '미칠선수'가 관심사가 되고 있다. KIA 선수들이 푸는 가을 사나이 후보는 누구일까?

올 시즌 꾸준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안치홍과 후반기 파워히터로의 면모를 유감 없이 밟았고 있는 나지완은 선수단이 우선 푸는 후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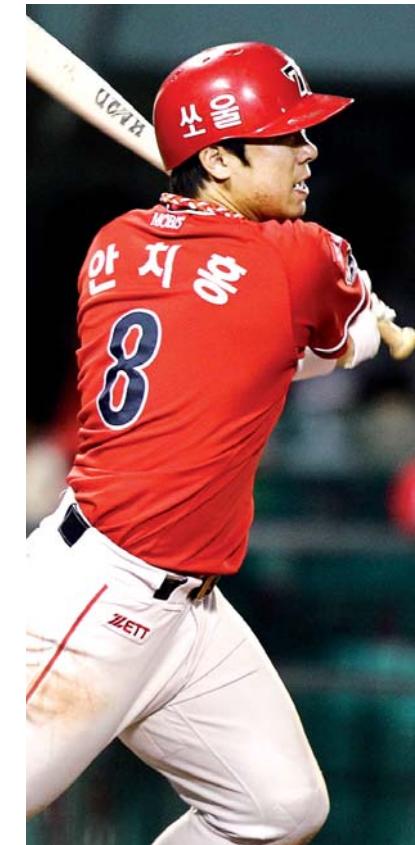
두 선수는 2009년 한국시리즈에서도 큰 일을 냈다. 한국시리즈 7차전 마지막 대결에서 고졸 신인이었던 안치홍이 7회말 솔로포를 터트리며 4-5를 만들었고, 프로 2년차 나지완은 6회 투런포에 이어 9회말 끝내기 홈런을 날리며 극적인 가을드라마의 주인공이 됐었다.

큰 경기에 강한 두 선수는 최근 절정의 타격감을 보이며 가을사나이로 주목받고 있다.

3할이 넘는 타율과 안정된 수비로 2루수 골든글로브 0순위인 안치홍은 김태룡 전력분석팀 코치, 백인호 작전 코치 등 코치진이 우선 푸는 선수다. 안치홍과 키스톤 품질로 호흡을 맞추고 있는 김선빈도 안치홍을 우선 거론했다. 포스트시즌에서



나지완



안치홍



양현종

의 꾸준함과 승부근성이 안치홍의 활약을 기대하는 이유다.

많은 표를 모은 안치홍이 지목한 후보는 나지완이다. "타격감이 물이 올랐다"는 게 안치홍의 분석이다. 6일 나지완은 체력과 배 등을 이유로 선발 라인업에서는 제외됐지만 조법현 감독과 최희섭·임준혁·김진우 등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나지완 스스로도 "가을 사나이가 되겠다"고 큰 소리를 칠 만큼 컨디션이 좋다.

타격 상승세인 김상현은 백전 노장 이종범이 기대 하는 인물이다. 코칭스태프와 신종길·이현곤 등이 김상현의 방향이를 주목하고 있다.

마운드에서는 양현종이 불루칩이다.

양현종은 5일 경기 전까지 6.30의 방어율로 7승9패에 그치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투수진들이 푸는 가을사나이 후보다.

에이스 윤석민은 "옆에서 계속 지켜봤

기 때문에 컨디션을 잘 안다. 최근 페이스도 좋다"며 "올 시즌 부진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좋은 활약을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서 양현종을 푸았다"고 말했다.

올 시즌 SK에 강한 면모를 보인 베테랑 이종범과 서재웅 그리고 돌아온 최희섭도 가을 사나이 후보다. 신인왕 후보 심동섭도 두둑한 배짱을 앞세워 선배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Lumar 루마썬팅 | 3M 썬팅 | 모비스썬팅

앞유리 썬팅을 하면  
열차단·  
자외선 차단 끝한국카랜드 자동차용품 백화점  
TEL. 062-521-2258 H.P. 010-9633-3535

천연가죽시트

세련된 정교함이  
돋보이는 가죽시트  
▶승용 5인기준 30만원→28만원 부터 ▶RV 5인기준 30만원→30만원 부터

타이어 | 휠 | 경정비

한국, 금호, 넥센, 미쉐린, 수입

타이어 4종 교체시 스노우체인  
12만원 상당 무료증정(공짜)  
• 얼라이먼트 3-3-3만원 무상점검  
• 평생 평크 무상점검  
• 타이어암, 뒤 순환교체 평생 무료점검  
• 브레이크워셔액 무료증정

공짜

타이어 상담전화: 062-528-2258

HANKOOK driving emotion

타이어

광택 | 유리막코팅 | 맥과이어스 | 3M

Meguiar's since 1901

오리지널 맥과이어스 광택제 사용 "전국 최저가"

▶ 소형 25만원→13만원 → 23만원  
▶ 중형 30만원→18만원 → 28만원  
▶ 대형 35만원→23만원

전국 최저가 판매

■ 국내최대 500평 매장  
■ 주차장 700평 주차걱정 끝